



보 도 자 료

책임자 조영현 실장(금융시장분석실, 3775-9032)
 작성자 박희우 연구위원(3775-9046)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보도 2023. 3. 17(금) 조간부터
 (온라인 2023. 3. 16(목) 12:00부터)
 배포 2023. 3. 15(수)
 매수 총 4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과 ESG 투자』 CEO Report 발간

“ES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 ESG 투자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

-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금융시장분석실)은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산업의 ESG 투자 필요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정책당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보험산업과 ESG 투자』 보고서를 발표함
- ESG 투자는 기업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투자자는 ESG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표 1> 재무 및 사회 투자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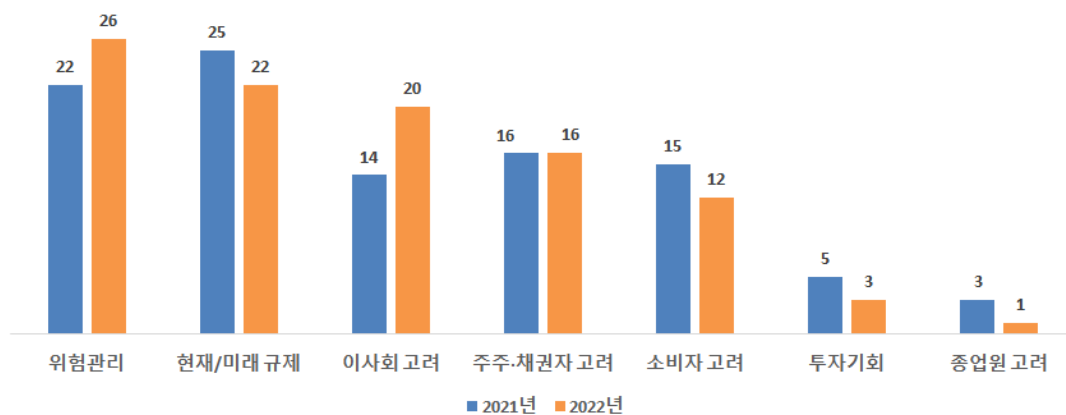
구분	목적	추구하는 수익
전통적 자선	자선·기부를 통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사회적 수익
벤처 자선	벤처 투자 방식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	사회적 수익에 집중
사회 투자	사회·환경적 변화·결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일부의 재무적 수익을 추구	사회적 수익 및 일부 재무적 수익
임팩트 투자	재무적 수익 추구에 더불어 측정 가능한 환경·사회적 수익을 추구	사회적 수익 및 충분한 재무적 수익
ESG 투자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성장 기회를 식별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향상	장기적인 재무적 수익에 집중
전통적 재무 투자	ESG 요소를 제한적이거나 고려하지 않는 투자	재무적 수익

자료: Boffo and Patalano(2020),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OECD

- (필요성) 보험회사는 ESG 투자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음
- ESG 투자를 통해 보험회사는 장기 자본공급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할 수 있으며, 각국 정책당국에 의해 강조되는 ESG 관련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사회적 기대의 충족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를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ESG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가 ESG 투자의 주된 동인이라고 응답함

<그림 1> 보험회사 ESG 투자 동인

(단위: %)



주: 글로벌 보험회사 CIO 및 CFO가 ESG 투자의 주요 동인으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GSAM(2022), "Insurance Survey 2022"

- (글로벌 현황) 보험회사의 ESG 투자는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시아에 비해서도 확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임
- 유럽 국가들은 ESG 관련 정책 제정을 선도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도 ESG 투자를 앞서 실천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親)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가 점진적으로 ESG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유럽 현황) ESG 투자를 선도하는 유럽 보험회사는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 ESG 통합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
- 유럽 보험회사가 주로 활용해온 임팩트·지속가능 테마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재무적 성과 달성에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ESG 통합 전략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특정 테마에 근거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방식

** 석탄, 담배, 무기제조 등 특정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배제하는 투자 방식

-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ESG 요소의 정성·정량적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기업 관여까지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같은 자산 소유자는 외부 운용사 선정 시에도 ESG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국내 현황) 국내 보험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ESG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외부 위탁 형태로 ESG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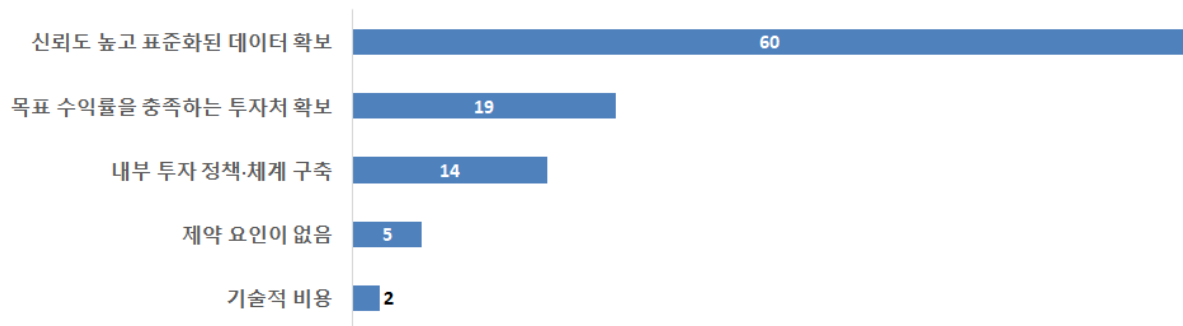
- 석탄, 담배 등과 관련된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투자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산관리부서, ESG 심사부서 및 ESG 위원회까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인프라, 부동산 등 비상장 자산 혹은 해외 투자는 운용계열사 등 외부 위탁운용사를 통해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주요 이슈) 보험회사의 ESG 투자에서 주요 제약 요인은 ESG 데이터의 확보, 투자처 확보 등이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뢰도 높고 표준화된 데이터의 확보, 목표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처 확보, 내부 투자 정책 및 체계 구축 등이 ESG 투자 시에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2> 글로벌 보험회사의 ESG 투자 시 주요 제약 요인

(단위: %)



자료: GSAM(2022), "Insurance Survey 2022"

- (경영과제) 국내 보험회사는 ESG 통합 전략 확대와 ESG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선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특정 기업 혹은 사업을 배제하여 포트폴리오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성과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ESG 통합 전략의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위탁운용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 보험회사는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평가·선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정책당국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ESG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관협력 투자 정책을 통해 투자처를 확보하여 ESG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ESG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핵심 ESG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업별로 비교 가능성·투명성·일관성을 제고하여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사업의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는 민·관협력 투자 정책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첨부: CEO Report 『보험산업과 ESG 투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